對內外 經濟 與件 變化와
主要 產業別 景氣 展望

KIET 産業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연 구 진

연구위원	김 주 한
	이 재 덕
	주 대 영
수석연구원	오 규 창
	박 광 순
	오 영 석
	홍 성 인
책임연구원	박 훈
	박 정 수
	정 은 미
	김 영 국
연 구 원	한 병 섭

〈차　　례〉

〈요　　약〉 …… 1

Ⅰ.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 3

1. 대외경제 여건 변화 …… 3
2. 국내경제 여건 변화 …… 4
(1) 국내경제 동향 …… 4
(2) 국내경제 전망 …… 6

Ⅱ. 산업별 전망 …… 11

1. 개　　관 …… 11
2. 섬 유 산 업 …… 14
3. 자동차산업 …… 17
4. 일반기계산업 …… 19
5. 철 강 산 업 …… 21
6. 가 전 산 업 …… 23
7. 조 선 산 업 …… 26
8. 석유화학산업 …… 28
9. 반도체산업 …… 30
10. 컴퓨터산업 …… 32
11. 통신기기산업 …… 35

〈表 차 례〉

〈表Ⅰ－1〉 주요 기관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3
〈表Ⅰ－2〉 국내경제 전망 …… 5
〈表Ⅱ－1〉 주요 산업 전망 …… 12
〈表Ⅱ－2〉 섬유산업 전망 …… 15
〈表Ⅱ－3〉 자동차산업 전망 …… 17
〈表Ⅱ－4〉 일반기계산업 전망 …… 20
〈表Ⅱ－5〉 철강산업 전망 …… 22
〈表Ⅱ－6〉 가전산업 전망 …… 24
〈表Ⅱ－7〉 조선산업 전망 …… 26
〈表Ⅱ－8〉 석유화학산업 전망 …… 29
〈表Ⅱ－9〉 반도체산업 전망 …… 31
〈表Ⅱ－10〉 컴퓨터산업 전망 …… 33
〈表Ⅱ－11〉 통신기기산업 전망 …… 35

〈요 약〉

□ 경 제 전 망

○ 지난해 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2% 내외에 머물렀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금년 국내경제는 작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6%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전망

○ 내년에는 실질소득 증가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내수 및 투자가 크게 회복되면서, 5%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산 업 전 망

○ 금년 산업생산은 기업 구조조정 진전, 내수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그리고 지난해의 급감에 따른 반등 효과 등으로 소폭이나마 플러스 증가로 반전될 전망

○ 내년에는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내수 회복 가시화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이 금년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의 경우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산업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철강산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빈 면

Ⅰ.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1. 대외경제 여건 변화

○ 지난해 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2% 내외에 머물렀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에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

- 미국과 EU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본, 아시아국가들은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전망

○ 세계교역 신장률은 금년에는 성장부진과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4~5%대의 낮은 수준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5~6%

〈表Ⅰ-1〉 주요 기관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單位 : %

	1997	1998			1999		
		IMF	WEFA	OECD	IMF	WEFA	OECD
전 세 계	4.2	2.5	1.5	2.0	2.3	1.8	2.1
미 국	3.9	3.9	3.9	3.5	3.3	3.5	1.5
일 본	1.4	−2.8	−2.9	−2.6	−1.4	−1.6	0.2
E U	2.7	2.8	2.7	2.8	1.8	2.0	2.2
아시아신흥공업국	6.0	−1.5	−4.5	−	2.1	1.4	−

資料 : IMF, *World Outlook*, 1999. 4,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8. 1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9. 1/4.

수준에 머물 전망

○ 금년 4월 중순 현재 110엔대 후반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엔/달러 환율이 2/4분기 이후 다소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130엔 이상으로 급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2. 국내경제 여건 변화

(1) 국내경제 동향

□ 작년 −5.8%의 사상 최저 성장률 기록

○ 재작년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사태,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둔화되었던 국내경제가 지난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극심한 내수 위축까지 겹쳐 사상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였음.

- 재작년 5.0%를 나타내었던 실질 GDP 성장률(1995년 불변가격 기준)이 작년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5.5% 기록

○ 민간소비는 명목임금 하락 및 실업증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9.6% 감소

○ 고정투자의 경우, 설비투자가 실물경기 위축과 낮은 가동률, 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무려 38.5%나 감소하였고, 건설투자도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위축과 건설업체들

〈表Ⅰ-2〉 국내경제 전망

單位 : 전년 동기비, %

	1998	1999				연 간	2000
		1/4	2/4	3/4	4/4		
실질GDP 성장률	-5.8	1.9	3.6	4.8	3.9	3.6	5.1
최종소비지출	-8.2	-0.3	0.8	1.2	2.7	1.1	3.8
(민간소비)	-9.6	-0.4	0.8	1.1	2.7	1.1	3.9
(정부소비)	-0.1	0.3	0.7	1.5	2.5	1.3	3.4
총자본형성	-38.6	39.5	34.9	38.1	20.0	31.5	7.0
(설비투자)	-38.5	-3.9	-1.7	2.4	4.1	0.2	5.9
(건설투자)	-10.2	-7.8	-3.6	-2.5	3.2	-2.2	4.8
재화와 용역의 수출	13.3	1.4	3.0	5.7	4.7	3.7	7.8
재화와 용역의 수입	-22.0	19.6	20.1	21.8	18.1	19.8	8.1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억 달러)	1,323	305	337	322	369	1,334	1,406
(증가율)	(-2.8)	(-5.2)	(-3.3)	(5.8)	(6.3)	(0.8)	(5.4)
수입(억 달러)	933	256	269	259	300	1,084	1,219
(증가율)	(-35.5)	(8.4)	(14.2)	(20.9)	(21.7)	(16.2)	(12.5)
수출입차(억 달러)	390	49	68	63	70	250	186
국제수지							
상품수지(억 달러)	412	59	76	70	78	282	216
경상수지(억 달러)	400	53	65	55	59	233	152
물 가							
소비자물가상승률	7.5	0.8	1.2	1.3	1.2	1.2	2.3
생산자물가상승률	12.2	-3.3	-1.3	-0.6	-0.1	-1.3	1.7
금리(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기말)	8.3	8.1	7.8	8.3	9.0	9.0	10.0
원/달러 환율(기말)	1,396	1,224	1,240	1,220	1,200	1,200	1,150

資料 : 산업연구원(KIET), 1999/2000년 국내 경제전망, 1999. 4.

의 도산 등으로 10.2% 감소

○ 재고는 예년에 통상 ±3조원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산업생산의 급격한 감소, 수입 및 원자재 재고 감소 등으로 무려 28조원이나 감소

○ 반면, 무역수지(통관 기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수입 감소로 39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수출은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주력 수출제품의 수출단가 하락, 수출금융 경색 등으로 2.8% 감소하였고, 수입은 극심한 내수 위축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35.5% 감소

(2) 국내경제 전망

□ 금년 3%대의 플러스 성장 전망

○ 외환위기 이후 침체가 심화되던 국내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중에 저점을 지나 금년 들어 회복세 지속

○ 금년 국내경제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나 미국경제의 급속한 둔화 등의 대외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작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6%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전망

- 우선 상반기의 경우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건설 및 설비투자의 감소세 둔화, 소비 및 재고의 플러스 증

가 등에 기인

-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높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정부가 투자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함에 따라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하반기에 설비 및 건설투자도 플러스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민간소비는 명목임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 상승, 정부의 소비진작 효과 발생, 작년의 급속한 소비위축에 따른 상대적 반등 등으로 1.1% 증가할 전망

- 정부소비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라 작년의 최악의 상태에서 점차 벗어나 0.2%의 플러스 증가율로 회복될 전망.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설비투자 회복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제조업 가동률이 아직도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고 내수도 본격 회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출 여건 또한 좋지 않아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건설수요 부진으로 침체 양상이 지속될 것이나, 하반

기에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함께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발생하면서 회복세를 보여 연간 증가율 -2.2%로 감소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

○ 대외부문의 경우 수출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 등으로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5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전망

- 수출은 아시아 경기 회복과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 등 일부 개선요인이 있으나, 세계경기 침체 지속과 원화 가치 상승, 그리고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악화요인이 적지 않아 작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0.8% 증가에 그칠 전망

- 반면,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6.2% 증가할 전망

□ **내년에는 5.1% 성장 예상**

○ 내년 국내경제는 5%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주가 상승 등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그 동안 연기되었던 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3.9% 증가하여, 재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경기회복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 및 자산소득 증가와 함께,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등으로 실질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특히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와 생산의 상호 상승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내수회복은 안정적인 성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는 국내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수 증가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더욱 활발해져 5.9%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는 그 동안 집중되었던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합리화 투자 위주로 진행

○ 건설경기도 내수 회복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및 정부의 SOC투자 확대 등으로 4.8% 증가할 전망

○ 대외부문에서는 수출입이 모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외환위기 여파로 크게 위축되었던 수입이 급속도로 회복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폭이 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186억 달러로 전망

- 수출은 아시아 경기 회복과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5%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

- 수입도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및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두자리 수의 신장세가 지속될 전망

Ⅱ. 산업별 전망

1. 개 관

○ 작년 산업활동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내수 침체와 함께 생산의 급격한 감소 및 제조업 평균 가동률 급락 등으로 매우 부진

- 제조업생산은 통신기기, 조선 등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자동차 및 일반기계 등의 대폭 감소로 인해 7.1%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평균 가동률이 67.2%로 전년보다 12.7% 포인트 저하

- 수출은 환율 급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대 교역상대국인 아시아국가들의 경기 침체,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그리고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주력 수출상품의 가격하락 등으로 2.8% 감소

○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실물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일단락 및 국제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금융경색이 점차 완화되면서 산업생산도 점차 증가

○ 금년 산업생산은 기업 구조조정 진전,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내수 회복, 그리고 지난해의 급감에 따른 반등 효과 등으로 소

〈表Ⅱ－1〉 주요 산업 전망

	1998		1999		2000	
	생 산	수 출	생 산	수 출	생 산	수 출
자 동 차	↓↓	△	↑↑	↑	↑	△
조 선	↑	↑	△	↑	△	△
철 강	▽	↑↑	▽	↓↓	△	▽
석 유 화 학	△	↑↑	△	△	△	△
일 반 기 계	↓↓	▽	△	△	△	△
반 도 체	▽	▽	↑	↑	↑	↑
컴 퓨 터	△	↓	↑	↑	↑	↑
통 신 기 기	↑↑	↑↑	△	↑↑	△	↑
가 전	▽	↓	△	△	△	△
섬 유	▽	▽	▽	▽	△	△

註 : △ : 0～10% 증가, ↑ : 10～20% 증가, ↑↑ : 20% 이상 증가.
▽ : 0～10% 감소, ↓ : 10～20% 감소, ↓↓ : 20% 이상 감소.

폭이나마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특히 지난해 생산 감소로 재고가 크게 감소한 점 또한 생산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신용경색 완화, 금융시장 안정 및 증시 호조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도 산업생산 증가에 기여

- 또한 내수가 자산가치 상승 및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산업생산 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산업별 생산전망을 살펴보면,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산업이 활발할 것이나, 철강산업과 섬유산업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

로 전망

- 지난해 크게 감소하였던 자동차산업은 구조조정 마무리 및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전산업에서 가장 높은 27.2%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컴퓨터와 반도체산업은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으로 10%가 넘는 생산 증가 예상

- 반면, 철강산업은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여건 악화로, 섬유산업은 내수 위축으로 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내년에는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개선, 정부의 소비진작책에 따른 내수 회복 가시화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생산이 금년보다 증가할 전망

- 내수의 경우 자동차, 컴퓨터 및 철강산업은 10% 이상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생산의 경우 반도체, 컴퓨터 및 자동차산업이 1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과 섬유산업은 금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금년 수출은 아시아 경기 회복과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 등 일부 개선요인이 있으나, 세계경기 침체 지속과 원화 가치 상승, 그리고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악화요인이 적지 않아 0.8%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통신기기산업의 수출이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증가율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컴퓨터, 반도체산업은 세계 PC 수요 증가로, 조선산업은 대규모 수주물량 확보로 수출이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반면, 철강산업의 수출은 세계 철강시황의 약세, 수출경쟁 심화 및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20% 이상 감소 전망

○ 내년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경쟁력 향상 등으로 5%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컴퓨터, 반도체 및 통신기기산업의 수출은 10%가 넘는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철강산업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

2. 섬 유 산 업

□ **작년 : 무역수지 흑자 130억 달러 기록**

○ 작년 우리나라 섬유수출은 165억 3,200만 달러, 수입은 34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섬유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30억 달러 기록

〈表Ⅱ-2〉 섬유산업 전망

單位 : 10억원,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생 산	35,528(-3.0)	35,173(-1.0)	35,701(1.5)
수 입	3,473(-41.8)	3,970(14.3)	4,963(25.0)
내 수	15,126(-21.3)	16,034(6.0)	17,413(8.6)
수 출	16,532(-9.9)	16,234(-1.8)	17,029(4.9)

註 : 1) 1998년 생산 및 내수는 추정치
2) 수출과 수입은 달러화 기준
3)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이는 원화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부담 가중 및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섬유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

○ 섬유수출은 재작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섬유수출의 4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홍콩 등 아시아지역의 수요감소가 가장 큰 원인

- 이러한 세계 섬유수요 부진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의 수출단가는 재작년에 비해 15% 정도 하락하였고, 특히 피치스킨 직물의 경우는 50% 이상 하락

○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섬유수출업체(특히 화섬원사 및 직물)들은 환율의 영향으로 수출채산성이 재작년에 비해 크게 호전

□ 금년과 내년 : 수출채산성 악화 전망

○ 금년도 섬유산업은 내수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패션의류를 비롯

한 면방 및 모방은 매출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섬사 및 화섬직물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감소, 환율 등의 영향으로 매출감소와 함께 수익성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화섬사 및 화섬직물업계는 작년 11월 이후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짐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 동안 꾸준히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면방, 모방 등은 원면, 양모 등의 원료가격 안정과 품질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매출증대와 함께 수익성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두 자리수의 수출증가세를 기록한 패션의류는 금년에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수요증대로 큰 폭의 수출 신장세가 예상되며, 내수 역시 재고감소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대로 20% 이상의 매출신장 예상

○ 내년 섬유산업은 본격적인 국내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수 패션의류시장이 확대되고 생산 및 수출도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호전 예상

○ 반면 화섬분야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공급과잉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M&A나 상호출자에 의한 합작회사의 설립 등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 필요

- 수출부진이 예상되는 폴리에스터 직물업계는 과잉설비의 적극적인 대북 이전 모색, 고감성·고기능성 소재개발 등에 의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속적인 차별화 전략 추진 필요

3. 자동차산업

□ 작년 : 하반기 이후 수출 회복세

○ 작년 자동차 내수는 자산 디플레, 마이너스 경제 성장, 유가 상승 등으로 48.5% 감소

- 그러나 마티즈와 아토스 등 유지비가 저렴한 경차부문은 IMF 상황에도 불구하고 81%의 폭발적인 증가율 기록

○ 작년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에는 부진하였으나 하반기부터 두 자리수 증가율로 회복되면서 3.4% 증가 시현

-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6.3% 증가한 반면, 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상용차의 경우 16.8% 감소

- 지역별로는 서유럽이 경차 수출호조에 힘입어 27%의 증가를

〈表Ⅱ-3〉 자동차산업 전망

單位 : 만대, %

	1998	1999	2000
생 산	195(-30.6)	248(27.2)	279(12.5)
내 수	78(-48.5)	98(25.6)	116(18.4)
수 출	136(3.4)	151(11.0)	163(7.9)

註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기록한 반면,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중남미는 각각 83%, 16% 감소

○ 내수가 반감하고 수출이 미증함에 따라 자동차 생산은 30.6% 감소

– 자동차산업의 연간 가동률은 40%대로 1980년의 중화학 투자조정 이후 최저수준 기록

□ 금년과 내년 :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수 가파른 증가

○ 향후 자동차 내수는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의 회복에 힘입어 지난 해의 극심한 부진으로부터 회복될 전망

– 특히 작년에 유보되었던 대체수요가 금년에 집중됨에 따라 내수증가율은 26%에 달할 전망

○ 그러나 IMF 이전 수준의 내수규모(165만대) 회복은 적어도 2003년경에야 가능할 전망

– 단, 기업 및 금융개혁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제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2년경이면 IMF 이전 수준의 내수 회복 가능

○ 자동차 수출은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수출체제가 정비되고 실질임금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과 내년에 각각 11.0%, 7.7% 증가 예상

- 그러나 최근 국산차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개도국 경제가 금년에도 급속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지역으로의 수출은 계속 부진할 전망

○ 내수와 수출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내년 자동차 생산은 279만대로, IMF 이전인 1997년 수준(282만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4. 일반기계산업

□ 작년 :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생산 및 수입 큰 폭 감소

○ 일반기계산업은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산업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가동률이 저하되었으며, 금융경색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도산 속출

○ 수급동향을 보면, 내수 및 수출입은 물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온 생산마저도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생산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25.1%, −52.6%를 기록. 생산은 26조 3,500억원으로 IMF 금융위기 이전(1996년 기준)의 76.3%에 불과

○ 수출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며 지난 해에는 83억 6,400만 달러 기록

〈表Ⅱ-4〉 일반기계산업 전망

單位 : 10억원,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생 산	26,350(-25.1)	27,351(3.8)	28,992(6.0)
수 입	7,699(-52.6)	8,284(7.6)	9,154(10.5)
내 수	25,422(-39.8)	26,800(5.4)	28,750(7.3)
수 출	8,364(-7.7)	8,690(3.9)	9,368(7.8)

註 : 1) 1998년의 생산 및 내수는 추정치, 수출입은 실적치
2) 생산 및 내수는 원화, 수출입은 달러화 기준
3)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아세안시장으로의 수출부진 외에 일본 엔화와 대만 NT달러화의 동반하락, 외환위기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경색 지속에 따른 기업부도 증가 등이 수출둔화의 복합요인으로 작용

□ 금년과 내년 : 내년 생산증가율 6%로 회복 전망

○ 금년 일반기계산업은 지난해의 급격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지난해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추가설비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한 유휴설비도 기계류의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회복과 정부의 소비진작책에 힘입어 생산

은 물론 수입도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내수침체와 기업구조조정으로 저조했던 기업들의 투자가 개·보수 및 합리화 투자를 중심으로 서서히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

○ 금년 7월부터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NC 선반, 머시닝센터 등 핵심 생산설비의 수입증가 우려

○ 한편,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무역수지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소폭이나마 흑자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흑자폭은 작년 6억 6,500만 달러에서 금년 4억 600만 달러로, 그리고 내년에는 2억 1,400만 달러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

5. 철 강 산 업

□ 작년 : 유례없는 내수 감소를 수출확대로 타개

○ 작년 국내 철강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아시아 경제성장 부진과 국내경기 침체로 내수가 35% 감소

- 자동차, 일반기계, 가전 등 주요 산업의 철강소비 감소와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條綱類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침체에 주로 기인

- 조강류 수요가 21% 감소하였으며, 판재류는 열연강판, 냉연

〈表Ⅱ-5〉 철강산업 전망

單位 : 천톤, %

	1998	1999	2000
생 산	39,896(-6.3)	39,055(-2.1)	41,283(6.0)
수 입	3,659(-59.1)	3,374(-7.8)	3,800(12.6)
내 수	26,018(-34.9)	28,750(10.5)	32,083(12.0)
수 출	17,537(51.7)	13,679(-22.0)	13,000(-5.0)

註 : 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2) 粗綱 기준

강판, 강관 등의 수요부진으로 11.4% 감소

○ 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강수출은 52% 증가한 1,754만톤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

- 내수 부진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수출확대전략,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미국, 유럽 등의 철강시황 호조 등에 힘입어 조강류 및 판재류 모두 수출이 크게 증가

-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급증으로 주요 철강수입국들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말부터 수출시황 악화

○ 공급측면에서는 출하 감소 및 재고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철강업체들이 감산에 돌입하여 조강생산이 6.3% 감소된 3,990만톤 수준을 기록

- 수입은 내수 침체, 생산능력 증대 등으로 감소 지속

□ **금년과 내년 : 철강내수 늘어나면서 시황 점차 회복될 전망**

○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SOC투자가 확대되면서 향후 내수는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내수물량은 3,208만톤 수준에 머물러 1994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건설부문에서 정부 공사에 대한 조기발주의 본격적인 시행과 민간 투자가 급속하게 회복될 경우 철강시황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

○ 조강생산은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가 회복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다시 4,100만톤 수준을 넘어설 전망

○ 수출은 세계 철강시황의 약세, 수출경쟁 심화, 수입규제 압력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아 1,300만톤대로 줄어들 전망이며, 수입은 핫코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증가요인이 거의 없어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반제품과 일부 철강제품의 내수 회복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

6. 가 전 산 업

□ 작년 : 수출 및 내수 급감

○ 국내 가전업체들은 그 동안 해외투자에 의한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에 주력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내수급감과 원화가치의 급락

〈表Ⅱ-6〉 가전산업 전망

單位 : 10억원,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생 산	10,292(-1.3)	10,806(5.0)	11,455(6.0)
수 입	740(-48.2)	851(15.0)	961(13.0)
내 수	2,413(-30.9)	2,703(12.0)	2,981(7.0)
수 출	5,194(-18.0)	5,350(3.0)	5,655(5.7)

註 : 1) 내수는 국내기업의 시판액만을 포함
2) 수출과 수입은 달러화 기준
3)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으로 직수출 강화

- 가전업체들은 생산라인을 수출용으로 전환하고 그 동안 자제해왔던 OEM 수출도 냉장고,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확대

- 그러나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영상음향기기의 수출감소가 지속되고, 수출비중이 30% 정도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가 악재로 작용함에 따라 수출실적은 18% 감소

- 내수 또한 31% 감소하였으나 원화 가치가 재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원화로 표시된 생산은 1.3%의 소폭 감소

□ **금년과 내년 : 수출 및 내수 점차 회복 전망**

○ 금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가전산업 생산은 5% 증가할 전망

- 내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감에 따라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의 경우 디지털 TV 등 디지털가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에어컨 등 백색가전 일부 품목의 수출이 신시장 개척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내수증가, 해외 현지생산제품의 역수입,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완전 폐지 등에 따라 15%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일본산 디지털 가전 및 일본산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된 동남아산 대형 TV 등의 수입과 일본의 대형 가전양판점들의 국내진출 예상

- 한편, '한국산 부품 무관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현지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의 역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

○ 국내 가전산업은 내년을 고비로 내수 및 수출의 회복세가 완연해질 전망

- 특히 내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TV 등 디지털 가전의 본격적인 수요확산이 우리나라 가전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작용

- 그러나 디지털 가전을 제외한 기존 제품의 경우 시장접근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현지생산 의존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생산은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7. 조 선 산 업

□ 작년 :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로 순항

○ 작년 국내 조선산업은 생산이 863만 GT로 15.9% 증가하였고, 수출이 754만 GT로 14.8% 증가하며 호황 지속

- 이는 충분한 조업량 확보, 확충설비의 효율 증대, 특히 IMF 체제 이후 근로자들의 의식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무분규 등에 의한 효과

○ 수주실적은 약 1,000만 GT로, 비록 21.6% 감소하였으나 재작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작년의 수주감소는 재작년의 수주급증에 따른 상대적 감소이며, 작년의 수주량은 연간 건조량을 크게 초과하는 기대 이상의 실적

- 주력 선종인 탱커 및 벌커의 수주가 다소 감소된 반면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부유식 원유저장시추선 등 고부가가치선

〈表Ⅱ-7〉 조선산업 전망

單位 : 만 GT, %

	1998	1999	2000
생 산	863(15.9)	930(7.8)	945(1.6)
내 수	109(1.8)	98(-10.1)	91(-7.1)
수 출	754(14.8)	832(10.3)	870(4.6)

註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의 수주 증가

○ 작년 말 기준 수주잔량은 1,906만 GT, 164억 달러 규모로, 업체별로 약 2~2.5년치 작업량에 해당

□ 금년과 내년 : 생산은 증가, 수주는 감소 추세

○ 세계 해운시황은 단기적으로 아시아의 경기 침체로 해상 물동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소 저조하거나 불투명할 전망

- 그러나 금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노후 선박의 해체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시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조선국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전년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던 선가는 환율이 안정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

○ 세계 조선수요는 70년대 초반에 대량 건조된 탱커의 대체수요 물량이 아직 남아 있고, 기준미달선의 퇴출 강화로 인한 대체수요로 꾸준히 증가 예상

- 그러나 작년의 저선가를 겨냥한 조기 발주 및 금년의 해운시황 악화 가능성 등으로 선주들의 발주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

○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우, 대외신인도 회복, 환율 안정 등으로 금년 수주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국내 해운업체들의 발주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국내 신조 발주는 어려울 전망

- 국내 조선산업의 금년과 내년 수주규모는 약 850만~900만 GT로 전망

○ 금년 생산 및 수출은 충분한 조업량 확보, 확충설비의 생산 안정화에 따라 각각 7.8%, 10.3% 증가 예상

- 내년 생산은 1.6% 증가한 945만 GT, 수출은 4.6% 증가한 870만 GT가 예상되며, 내수는 IMF 체제 이후 국내 해운사들의 저조한 발주로 7.2% 감소한 91만 GT에 그칠 전망

8. 석유화학산업

□ 작년 : 국내경기 침체 속에 내수는 급감, 수출은 대폭 증가

○ 석유화학산업은 내수가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 13.6% 감소한 반면, 수출은 36.5% 증가하여 내수와 수출간의 명암이 뚜렷하게 교차

- 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내수의 급감에 따른 업계의 수출다변화 노력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회복

○ 생산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지난해 완공된 설비의 본격 가동에 힘입어 7.2% 증가

- 석유화학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계획

〈表Ⅱ-8〉 석유화학산업 전망

單位 : 천톤, %

	1998	1999	2000
생 산	13,389(7.2)	14,058(5.0)	14,760(5.0)
수 입	951(-26.7)	950(0.0)	1,007(6.0)
내 수	7,690(-13.6)	7,989(3.9)	8,332(4.3)
수 출	6,675(36.5)	7,019(5.2)	7,435(5.9)

註 : 1)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3대 유도품 기준
2) 생산은 출하기준
3)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을 취소 또는 축소 조정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모색한 어려운 한 해

○ 수입은 내수 침체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크게 감소

□ 금년과 내년 : 설비투자 부진속 구조조정 가시화

○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3대 부문의 설비투자는 충분한 공급여력과 경기침체로 인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현재 3대 부문의 신·증설투자계획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금년과 내년의 국내경기 회복여부와 수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설비투자 증가 예상

○ 석유화학업계는 현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의 통합 등 구조조정 분위기 고조

- 대산단지에서는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간의 통합이 진

행되어 6월까지 단일법인의 탄생이 예상되고, 여천단지에서는 대림산업과 한화종합화학이 사업부문의 빅딜에 합의

○ 생산은 설비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완공된 설비의 본격가동과 구조조정에 따른 가동률 향상으로 5% 전후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내수는 국내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4%의 증가에 머물 전망

○ 수출은 설비투자의 부진과 내수의 회복세, 그리고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최대 수출시장인 아시아시장의 경기침체, 신증설투자의 완공에 따른 자급도 제고, 그리고 세계적인 공급과잉 지속으로 수출경쟁이 심화될 전망

9. 반도체산업

□ 작년 : 수출 3년째 감소세 지속

○ 작년에 세계 반도체시장은 침체가 계속되어 세계 D램 시장규모를 1993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으며, 계속된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세계 반도체업계에서는 D램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

〈表Ⅱ-9〉 반도체산업 전망

單位 :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생 산	18,690(-6.1)	20,900(11.8)	23,810(13.9)
수 입	12,246(-5.0)	13,120(7.1)	14,210(8.3)
내 수	13,926(-9.3)	15,000(7.7)	16,480(9.9)
수 출	17,010(-2.4)	19,020(11.8)	21,540(13.2)

註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9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반도체산업은 작년에도 6.1%의 수출 감소를 나타내어 1996년부터 감소세 시현

○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업계는 과잉투자에 따른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외환위기에 직면하였고, IMF 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미흡한 실정

- 국내 반도체업계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축소 및 분리, 해외법인 매각, 외자유치, 전략적 제휴 등 기업내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 중이나,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간 구조조정은 성과가 미흡

□ 금년과 내년 : 경기 회복되나 급격한 성장은 어려울 듯

○ 금년 국내 반도체산업 생산은 오랜만에 회복되어 11.8%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이 예상되며, 수출도 같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향후 반도체산업은 지난 90년대 전반기와 같은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단기적으로는 그 동안의 침체에서 점차 벗어나 내년 초까지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며, 그 후에는 다시 성장률 둔화 전망

- D램은 제품수명주기상 성장단계를 지나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상태. D램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PC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어서 신규시장 개척보다는 고성능제품으로의 대체수요에 크게 의존

○ 수입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IC 등 비메모리분야가 대부분을 차지

-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여 정보화 투자를 통한 시스템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수입이 계속 증가

- 금년 반도체 수입은 7.1%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비메모리분야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설계인력 양성사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의 창업 붐과 함께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10. 컴퓨터산업

□ 작년 :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 생산은 플러스 성장

○ 작년 생산은 상반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4.3%의 건실한 성장

〈表Ⅱ－10〉 컴퓨터산업 전망

單位 : 10억원,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생 산	7,873(4.3)	9,188(16.7)	10,796(17.5)
수 입	1,722(－51.5)	1,971(14.5)	2,271(15.2)
내 수	1,651(－25.9)	1,959(18.6)	2,297(17.3)
수 출	5,095(－13.8)	5,889(15.6)	6,856(16.4)

資料 : 한국전자산업진흥회,「전자공업통계」및 KOTIS,「무역통계」, KIET 추정.
註 : 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2) 생산 및 내수는 원화, 수출 및 수입은 달러화 기준.

시현

- 상반기 중 중소업체의 부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 환율 안정, 수출물량 증가, 게임방 부상 등으로 생산이 플러스 성장

○ 내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들에 의한 저가형 컴퓨터 및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고성능·고가격 노트북 컴퓨터 등의 판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25.9% 감소

○ 수출은 국내업체들의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산업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변기기 부문의 수출 급감으로 13.8% 감소

□ **금년과 내년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 전망**

○ 금년부터 국내 컴퓨터산업은 고성능 주변기기 중심의 수출확대, 민간 및 공공부문의 수요 증가, 국내기업의 다각적인 판매노력

등으로 지난해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금년 생산은 컴퓨터업체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사업개편 등을 통한 경영 내실화 추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비중 확대 노력, 그리고 그 동안 침체에 빠졌던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16.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내수는 정부의 수요진작책과 기술개발에 힘입어 금년과 내년에 각각 18.6%, 17.3% 증가할 전망

- 공공부문 및 교육정보화 부문의 수요회복, 게임방 등 신종사업의 급부상, 저가 PC 및 핸드헬드 PC 등 새로운 개념의 PC 등장, 그리고 펜티엄 Ⅲ의 보급 확대 등이 내수 주도

○ 수출은 여건 개선으로 금년과 내년에 각각 15.6%, 16.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적 컴퓨터업체들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증가, 국내업체의 해외판매법인으로의 직접수출 증가 등이 기대

○ 한편 내수 회복과 환율 안정으로 수입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과 내수 증가에 따른 원·부자재와 관련기기의 수입수요 증가 예상

11. 통신기기산업

□ 작년 : 수출시장 개척으로 내수시장 위축 타개

○ 작년 통신기기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내수가 위축되었으나,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 생산은 42.8% 증가

- 내수는 기지국 설치 등 신규 시설투자가 축소되었으나, 이동전화용 및 PCS용 단말기 수요 확대에 따라 4.4%의 소폭 증가

○ 수출은 원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대선진국 가격경쟁력 강화와 내수 침체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해외 마케팅 노력으로 21.5%의 성장률 기록

- 이동통신 단말(CDMA용, GSM용)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35% 이상 증가하여 동 산업 수출 주도

〈表Ⅱ－11〉 통신기기산업 전망

單位 : 10억원,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생 산	8,423(42.8)	8,480(0.7)	8,930(5.3)
수 입	1,370(－39.2)	1,790(30.7)	2,280(27.4)
수 출	3,330(21.5)	4,030(21.0)	4,690(16.4)
내 수	5,674(4.4)	5,750(1.3)	6,100(6.1)

資料 : EIAK, 「전자진흥」, 각호, KOTIS 무역통계 DB, 산업연구원.
註 : 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2) 생산 및 내수는 원화, 수출 및 수입은 달러화 기준.

○ 수입은 외국업체의 CDMA용 이동통신 단말 공급지연에 따른 시장진입 실패와 함께 내수 위축으로 39.2% 감소

□ 금년과 내년 : CDMA 이동통신단말, 동 산업 주도

○ 향후 통신기기산업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구축과 신규 서비스 도입 활성화, 그리고 국내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생산과 수출에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내수시장은 금년들어 이동통신분야의 가입자수 증가 둔화추세에 따른 단말수요의 정체 또는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신망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또한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른 관련 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상태에서 국내업체들의 유일한 성장전략으로 활용되었던 수출전략은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금년 이후에는 보다 강화될 전망

- 수출시장의 다변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CDMA용 이동통신단말은 CDMA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통신기기산업의 수출을 주도할 전망

○ 수입은 작년에 40% 정도의 감소율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금년

이후 30% 내외의 높은 증가율 예상

- 특히 향후 본격 추진될 통신망 고도화와 신규서비스 도입 등에 따른 첨단통신장비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수입확대 예상

對內外 經濟 與件 變化와
主要 產業別 景氣 展望

1999年 4月 28日 印刷
1999年 4月 30日 發行

發行處 産業研究院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淸凉里洞 206-9
電話：962-6211～8(代)
㉾130-742

登錄 1983年 7月 7日 第5-1號

發行人 李 烘

印刷處 邦 文 社

購讀問議：企劃行政室(교환 676번)
內容의 無斷轉載·譯載를 禁함.

普及價 2,000원